

가공식품 가격 잡았더니 신선식품이 ‘들썩’ 정부, 물가안정 ‘할인행사’ 카드

라면 3사 역대 ‘최대실적’

농심 작년 영업이익 2121억 89% ↑
삼양식품 1468억 기록 62% 상승
오뚜기 2549억 전년비 37% 올라
물가 2.8% 오를때 농산물 15% ↑
농식품부, 내달 전국서 한우 할인

식품업계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신선식품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외식 물가 부담에 가공식품 소비가 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라면 3사인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120억 64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9.1% 늘었다. 매출액은 3조4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은 1468억2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62.46% 늘었고, 매출액은 1조19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3% 증가했다. 오뚜기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했다. 오뚜기 지난해 영업이익은 2548억93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했고 매출액은 3조4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제과·빙과 업계도 선방했다. 롯데웰푸드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7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빙그레는 전년 대비 185.2% 성장한 112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식품업계는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짬짬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다 정부의 물가안정화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10일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과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장기간 가격 동결은 어려워 보인다.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로 꾸준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의 장비구니 부담을 키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2.8%만 올랐지만 농산물은 15.4% 올랐다. 지난해 12월(15.7%)에 이어 두달 연속 1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일이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대표 품목인 사과와 배는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가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정부비축오징어·참조기 짬짬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다음 달 3일까지 소비자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정부와 유통업체가 협력해 자체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한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과일수입업체에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300억원을 들여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대상 할인 지원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난 26일 충북 진천 (주)삼진푸드 본사에서 열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신용운 (주)삼진푸드 대표이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대상, 고용노동부와 ‘협력사 상생’ 약속

지자체-기업 협력, 고용부 지원
식품업계 최초 공동선언식 진행

종합식품회사대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대상은 지난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삼진푸드 본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신용운 삼진푸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복지, 안전을 주요 골자로 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진푸드는 대상의 협력사 중 한 곳이다.

상생협력공동선언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상생 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4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게 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라 대상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숙련인력 확보, 전문성·생산성 향상 등 기술경쟁력 제고에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관계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협력업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 등 대상이 추진하는 협력방안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실행으로 식품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농심, 업계 첫 국가무형유산 지원 나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 맺어
“지속가능 전통문화 이수활동 지원”

농심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의 활동 기반 확장과 무형유산 가치 제고에 나선다.

농심은 전남 경복궁에서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하는 K-무형유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의 근간인 국내 무형유산의 저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총 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식품업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개인 기준)는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보유



지난 26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농심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왼쪽), 문영철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직무대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심

자와 전승교육사, 이수자로 나뉘며 그중 이수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활동하는 이수자는 등록인원 7000여명 중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심 이병학 대표

이사는 “최근 전세계 K컬처 및 K푸드 열풍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외 교민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주고 있다”며 “이제 무형유산이 또 다른 K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수자들의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이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전통문화 팝업행사를 개최하고, 이수자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전통 굿즈 개발도 지원한다.

전통굿즈 개발 지원은 이수자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다. 농심의 지원금으로 전통문화 굿즈를 개발하고, 굿즈 판매 수익금으로 전승활동비는 물론 새로운 굿즈 개발비로 활용하는 구조다. /신원선 기자

지그재그, 헤어기기 ‘유닉스’ 쇼케이스

내달 11일까지 최대 51% 할인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고객의 생활양식을 충족하기 위한 행사를 선보인다.

지그재그는 헤어기기 브랜드 ‘유닉스’ 단독 프리미엄 쇼케이스가 오는 3월 11일까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지그재그는 ‘하루를 완성하는 나만의 스타일링 메이트’라는 주제로 인기 제품을 최대 51% 할인 판매한다. 주요 제품을 포함한 일부 제품은 지그재그의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으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새벽배송도 가능하다.

최근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홈살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홈살롱’은 헤어 스타일링, 헤어 관리 등을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지그재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 기준 고데기, 드라이어 등 헤어기기 제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검색량은 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그재그는 2030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닉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에어샷 랩모션, 디오 무소음 드라이어 등을 지그재그 전용 특가로 소개한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4족보행 로봇 투입

‘스팟’ 송도점서 안전관리·순찰

현대백화점은 내달 9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의 안전 관리 및 순찰 업무에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시범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팟’은 아울렛 1층과 2층을 비롯해 후방의 직원 동선 등을 순찰하게 된다.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상 고온·가스 누출 등을 모니터링하며, 폐점 후에는 외부인 무단침입 등 위험요소를 감지해 안전 관리 직원에게 알람을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은 현대백화점과 로봇 관제 시스템 개발사인 플로리젠 로보틱스, 로봇 렌탈 기업 한국렌탈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26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폐점 후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2층 복도를 순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홈플러스, 양 늘린 ‘닭강정’ 리뉴얼 출시

홈플러스가 높은 외식 물가에 가성비 좋은 간편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소스의 맛과 원육 함량 등 품질을 대폭 높인 델리 닭강정 제품을 선보인다.

리뉴얼한 제품은 ‘홈플러스’ ▲한판 닭강정 ▲매콤간짜장닭강정 ▲하니순살 닭강정 ▲버라이어티닭강정 3종과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상품 ‘지금한끼’ ▲하니닭강정 ▲양념닭강정 ▲크림닭강정이다.

닭다리살 원육 함량을 늘리고, 오래 끓여 더 깊은 맛을 내는 홈플러스만의 특제 소스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꾸덕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 닭강정’은 1만5990원, ‘버라이어티닭강정 3종’은 1만990원, ‘지금한끼 닭강정’은 4390원 등 유명 맛집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